

베트남에 복지타운 세운다

연꽃마을, 4월 20일 '복지교육타운' 설립 위한 MOU 체결



베트남 광남성에 '한국형 복지교육타운'이 설립된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로부터 2만여 평(66,000㎡내외)을 기증받아 베트남에 '한국형 복지교육타운'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베트남 광남성 인민위원회 부회장, 탐키 시장 광남성 외무 부국장, 탐키시 토지개발센터 이사장 등 5명의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 일행이 4월 19~2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체류 기간인 20일 오전 10시 연꽃마을 안성 파라임 병원

6층 법당에서 '한국형 복지교육타운' 설립을 위한 상호 기본협약 조인식'을 체결한다. 21일 오후 2시에는 조계종 자승 스님을 예방해 한-베트남 불교교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MOU체결은 연꽃마을이 2005년부터 한국 해병대가 주둔했던 '다낭' 지역에 소재한 베트남 광남성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년 5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연꽃마을 관계자는 "3년 전에는 연꽃마을이 광남성 성장으로부터 각현 스님이 감사장을 받았다. 이런

연연 등으로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 내 부지 2만여 평을 연꽃마을이 무상기증을 받아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베트남으로부터 기증받은 2만여 평의 부지는 베트남 광남성의 수도인 탐키시내에 위치한다. 광남성은 경기도 보다 큰 지역(면적 10,406㎢)으로 베트남 중간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연꽃마을은 이곳에 광남성과 협의해 공동으로 △한국형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국제교육센터 △한국형 건강증진센터 △복지대학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도심포교에는 의료봉사가 최고죠”

한솔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는 구룡사 이혈치유단 봉사

분당에 위치한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목요일 오후만 되면 평소보다 어르신들의 발길이 더 잏아진다. 1시부터 '구룡사 이혈 치유 봉사단'이 복지관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혈 치유는 귀에 분포돼 있는 혈을 '신반석'을 이용해 자극, 건강 증진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대체의학의 하나다. 가톨릭 등 이웃 종교에서는 포교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구룡사 이혈치유봉사단. 사진 왼쪽부터 이경숙, 조초영, 김동욱 씨.

10여 명의 구룡사 이혈 치유 봉사단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한솔복지관을 찾는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활동한 것이 벌써 5-6년째다. "이른 곳을 어루만지고 대화를 하다보면 가족 같은 정이 샘솟습니다." 봉사단의 김동욱(62)씨는 이혈 치유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심리상담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곳을 찾는다. 이정숙(83)할머니는 "다들 우리에게 너무 잘 해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매주 이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솔복지관도 신반석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봉사단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봉사단의 조초영씨는 "봉사를 하면서도 불교의 기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밝혔다.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동욱 씨와 조초영 씨는 구룡사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며 불교계 이혈 치유요법 확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이경숙(62)씨는 두 사람의 제자의 제자다. 이 씨는 "두 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르

신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이혈 치유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혈 치유를 배워 봉사를 하려는 불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조초영씨는 "도심 포교를 위해서도 의료 봉사가 더 적절하다. 이혈 치유를 불교계에 확산시켜 불자들이 의료 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욱씨는 "봉사활동을 통한 부처님 말씀 실천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전법단 출범 1주년 기념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2010년 4월 30일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단장 계성)이 1주년을 맞아 4월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은 전법단 출범 후 1년간의 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전법단 활동 모범 사례를 영역·지역별로 발표하고

전법단 출범 1년의 성과를 보고하고 활동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전법단은 행사를 통해 소속 지도 법사의 화합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전법단 활동의 대외적 홍보를 통한 현장 활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법단 지도법사의 교류 및 친교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사찰 후원금 '쾌척'

조계사, 봉은사, 신흥사, 신륵사 등



조계종 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우승)와 여주 신륵사(주지 세영)가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성금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4월 12일 아름다운동행에 통해 전달했다. 같은 날 조계사(주지 토진)에서는 일본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15일부터 진행한 '세계일화(世界一花)' 지구본 성금과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은혜사(주지 돈관)도 일본지진과 군법당 건립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13일에는 봉은사(주지 진화)가 일본지진피해 지원과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신도들의 모금 등으로 마련한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을 전달해 왔다. 15일에는 무진선원(주지 도산)과 수덕사(주지 지운)가 국군장병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각각 아름다운동행에 통해 전달했다. **박기범·이나은 기자**

공불련, 월정사 성지순례법회

2011 주요행사, 사업계획 발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4월 9~10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20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7차 임원단회의를 개최했다. 공불련은 행사 첫날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모시고 임재법회를 했으며 탐돌이 강의 및 참선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을 모시고 기념법회를 가졌다. 공불련은 임재법회 후 제7차 임원단회의를 열고 △2011년 주요행사 추진일정 △해외성지순례 △공

불련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등을 논의했다. 공불련은 올해 △표준 경전보급 사업 △전국 암자순례 사업 △불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불련은 △제11차 합동수계법회(6/11~12) △조계종 포교원과 임원연수(5/20~22) △제10차 해외성지순례(7/30~8/6) △창립11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10/8~9) △송년법회(12월) 등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노인요양시설 자인원 증축개원

전남 신흥사, 위탁운영 15명 수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4월 14일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자인원의 증축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강진 신흥사가 운영지원사찰인 자인원은 강진군 강진을 춘전리 43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증축된 자인원은 연면적 356.4㎡크기의 1층 건물로 물리치료실, 생활실, 식당 등의 설비를 갖추고

수용인원도 15인 규모로 증가시켜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노인요양시설로 거듭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문적 경험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케어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노인요양 및 의료서비스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이 나 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부루나 덕분에 합창제 가요”

5월 14일 서울광장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 국민대합창 후원음악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명훈씨가 지휘자로 참여하며 각 종교계, 다문화어린이합창단, 성인합창단 등 유수 합창단들이 참여해 KBS로 전국 방송 될 예정이다. 종교계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민간단체 월드하모니가 불교계 합창단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페이스북 부루나를 통해 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연구소장이 페이스북 부

루나에 올린 글을 보고 불교계 합창단이 연락을 하게 된 것. 이 연구소장은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국민대합창에 참여하는데 이와 관련해 월드하모니 주최측과 논의를 하다 '불교계 합창단 섭외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월드하모니 측은 조계종과 종단협의회에 불교합창단 지원요청을 했으나 종단에서는 "봉축준비로 5월에 행사가 많으니 지원이 어렵다"고 거절한 것. 이현정 연구소장은 "월드하모니 관계자가 5월 14일 종교계 합창행사에 불교계만 빠지면 정부입

장에서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했다"며 "월드하모니에 연락을 취하니 참여 가능한 합창단 있으면 연락 달라"고 부루나에 게재했다. 이후 부루나를 본 정각원 합창단과 남성불자합창단이 월드하모니에 참여의사를 밝혀 후원음악회에 나갈 예정이다. 이현정 연구소장은 "페이스북 부루나 덕을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웃종교인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불교계의 소극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 때가 있다"며 "국가적인 일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시대의 요청과 교계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교중심을 세우고 현장의 지원을 통해 포교역량을 강화하고자 2010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후, 분야별·지역별 전법단의 구성과 운영을 전개하여 어느덧 출범 1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불교중흥을 이끄는<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의 활성화와 포교영역 확대를 위하여 본 중 스님 및 신도님들께 동참 및 후원을 안내드립니다.

- 취지
 - 신행·법회 소외 지역의 실질적 포교활동을 지원하여 현장에 도움을 제공
 - 지역과 연계된 전법단의 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포교의 거점 및 중심으로 위상 정립
 - 분야별·지역별 포교활동 진흥과 특수 분야의 포교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포교활성화에 기여
- 목표
 - 주요 계층 및 광역 중심의 전법단 구성
 - 포교현장 활동 스님의 발굴 및 전법단 조직 확대
- 구성경과
 - 분야별 구성
 - 지역별 구성

분야	출범일시
병원 전법단	2010년 5월 12일
경찰 전법단	2010년 6월 28일
군 전법단	2010년 7월 14일
대학생 전법단	2010년 12월 1일
교정교화 전법단	2011년 1월 20일
이주민 전법단	예정
장애인 전법단	예정

지역	출범일시
광주전남 전법단	2010년 10월 6일
성남 전법단	2010년 11월 1일
대구경북 전법단	2011년 4월 27일
울산경남 전법단	2011년 6월 중
대전충청 전법단	예정
인천 전법단	예정

동참 및 후원 안내

■ 후원 계좌

전법단 명	후원 계좌	예금주
병원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37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병원)
경찰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4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경찰)
군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65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군)
대학생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5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대학)
교정교화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832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교정교화)
광주전남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673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광주전남)
성남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80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성남)
대구경북지역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788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대구경북)

■ 구성 개요

- 지도법사단 : 본 중 승려로서 특정 분야에서 실제 포교활동을 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분
- 전법지원단 : 본 중에서 발급한 각종 포교자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 전법후원단 : 스님과 신도, 사찰 등에서 분야별, 지역별 전법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분과 단체

■ 동참 및 후원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법지원팀
 - TEL 02)2011-1892~3,1903 / FAX 02)720-7065
 - E-mail : shyjieun@buddhism.or.kr / airjaeil@buddhism.or.kr

2011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충